

● 자동차부품사 작년 매출 40% 증가

중견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자동차 내·외수 활황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이 98년에 비해 40%이상 늘어났다. 창문개폐장치인 윈도레귤레이터 생산업체인 광진상공은 미국 GM사로 수출을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1천30억원으로 98년에 비해 4백60억원이나 늘어났다.

전체 매출중 GM 수출비중이 43%에 달했으며 오는 2002년까지 GM에만 1억달러어치 이상을 내보낼 예정이다.

벨로즈 생산업체인 SJM은 GM, 포드, 폴크스바겐 등으로부터 수주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매출 4백70억원, 당기순이익 70억원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5백70억원의 외형을 올릴 계획이다. 이 회사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기존 안산공장 옆에 새 공장을 건립, 최근 4개 자동화라인을 갖추고 본격 가동하고 있다. SJM은 오는 2003년까지 수출물량으로 약 2억달러어치를 확보해 놓고 있다. 공화는 신규품목인 랩세서 등 자동차용 반도체 제품의 양산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이 5백 47억원으로 전년보다 2백40억원 증가했다. 이 회사는 특히 프랑스 마일사를 신규거래선으로 확보, 최근 퓨얼 프레스레귤레이터를 피아트, 르노 등에 공급함으로써 일본에 이어 유럽 수출의 물꼬를 텄다. 올해 매출 7백억원 달성을 목표로 시화본사 인근의 한 공장을 인수, 4개 라인을 증설한 상태다.

케이블 업체인 삼영케이블은 현대,

기아차에 이어 대우차를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 지난해 12월부터 부품 공급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GM 및 폴크스바겐으로부터 공장 실사 및 품질테스터를 거친 상태에서 수출선이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해보다 1백억원 가량 많은 4백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현대전자 자동차전장사업 분리

현대전자는 자동차용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전장사업부문을 떼어내 '현대오토넷'이라는 자회사로 출범시킨다고 2월16일 발표하였다.

현대오토넷은 자동차용 항법시스템(Car Navigation System)을 비롯해 카오디오 AV(Audio Video) 시스템, 차량의 각종 전자 제어장치 등을 개발 생산한다.

현대오토넷은 자동차 기술동향이 정보화, 안전화, 고기능화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기존 카오디오 분야를 카AV와 자동차용 항법시스템(CNS)을 하나로 결합시킨 AVCN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해나갈 방침이다. 또 2002년까지 1천3백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가는 한편 비자동차용 부품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 대우중공업, CNG엔진 개발

대우중공업은 환경친화형 압축천연가스(CNG)엔진을 독자 개발해 천연가스 버스를 제작중인 대우자

동차에 공급한다. CNG엔진은 정부 지원비 12억원 등 모두 50억원을 투입해 실용화한 것으로 대우중공업은 인천 엔진공장내에서 7월부터 연산 15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 엔진은 기존 디젤엔진보다 질소산화물은 67%, 소음은 5dB 정도 낮으며 연료비도 기존디젤엔진 비해 60%~70%정도라고 대우중공업은 밝혔다.

● 만도, ABS 독자개발

자동차부품업체인 (주)만도가 미끄럼방지장치인 ABS와 구동제어장치인 TCS를 독자개발하고 양산에 돌입했다. 이번 개발은 국내에서는 처음, 세계에서는 6번째이다.

만도는 지난 90년부터 ABS를 생산해 왔지만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해서였고 이번ABS/TCS의 독자개발로 제품원가를 30%이상 절감하고 중량 및 외곽치수를 단순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지난 93년부터 15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미끄럼방지시스템과 구동제어시스템은 국내뿐 아니라 스웨덴에서 2년여의 혹한기 테스트를 거쳐 성능이 입증되었다.

● 쏘텍코리아, ET램 및 서치램 본격 생산

벤처기업인 쏘텍코리아가 최근 공장설립을 마치고 오는 4월부터 특허상품인 ET램과 서치램의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 ET램은 쏘텍이 지난 84년부터 15년간 20억원을 투입해 완성한 특허제품으로 전조등의 방향을 핸들과 연동, 차의

진행방향에 맞게 빛을 비춰주는 기능성 램프이다. 서치램프도 무한대로 빛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신개념 서치라이트로 레저나 군작전용으로 수요가 예상된다.

쏘텍코리아는 지난 98년 두 제품의 실용화 준비를 마치고 지난해 3개 회사와 제조협약을 마쳤으나 협력사들의 경영난으로 상품화가 연기되었다. 특히 서치램프는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을 포함, 9개국의 자동차용품 딜러와 군수바이어들로부터 주문상담이 들어왔으나 생산일정을 확정하지 못해 회사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했었다.

● 삼성SDI, 전기자동차용 리튬폴리머전지 개발

삼성SDI가 전기자동차용 고성능 리튬폴리머전지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삼성SDI가 1년간 25억원을 투입, 개발한 리튬폴리머전지는 에너지밀도와 출력밀도가 각각 141Wh/kg와 289Wh/kg로 기존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보다 무게와 성능이 30%이상 개선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전지 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소재인 고용량 양음극 활물질의 국산화와 함께 대형전지 생산설비도 자체 개발, 가격경쟁력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지는 한번 충전으로 100km 이상 달릴 수 있어 차세대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다. G7과제인 리튬폴리머전지사업은 지난해 10월 1차년도를 완료, 현재 2차년도를 진행 중이며 완성차업체와 협력체제를 구축, 2003년부터 전기자동차용 전

지시장에 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동차부품연구원, 인터넷 사이트 운영 예정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빠르면 오는 6월부터 부품기술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다. 연구원이 준비중인 '사이버자동차기술정보센터' (가칭)는 △각종 부품관련 국내외 최신기술정보 △시험장비 및 연구인력 현황 △연구문헌 △최신 산업동향 및 각종 통계자료 등 각종 자동차부품 관련 정보등으로 꾸며진다. 연구원은 부품업체와 각종 연구센터 종사자, 자동차관련 학생들에게 정보센터를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나 자료 수집에 비용이 지출되는 해외문헌 정보 중 일부는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홈페이지 : www.katech.re.kr

대우자동차, 대대적 경영혁신운동 전개

대우자동차가 침체된 회사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회사 재건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총체적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한다.

「NS 2000운동」으로 명명된 이번 운동은 '새천년 새출발'을 의미하는 「New Start 2000운동」의 약자로, 회사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대우자동차 전직원이 합심해 직원 개인과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고객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회사를 탄생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운동은 2000년말까지 약 9개월동안 단기간에 걸쳐 집약적으로 추진되며, 부평, 군산, 창원, 부산공장 등 대우자동차 전 사업장은 물론 대우자동차판매도 함께 추진한다. 대우는 「NS 2000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사무국과 각 본부별 추진사무국을 상설 조직화했으며, 과거 상명하복식 경영혁신운동과 달리 하의상달식 사고 및 정책결정을 통해 전직원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우는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경영혁신운동인 NAC(New Automotive Industry Concept) 도전운동을 2단계에 걸쳐 전개했으며, '98~'99년 2년동안 NSP-G1(NAC Paradigm Shift-Global No.1)운동을 전사 차원에서 추진한 바 있다.

(강우 편집위원 : wkang@ns.katech.re.kr)